

# 세계 기술규제 높아진다... '보호무역 칼바람'

##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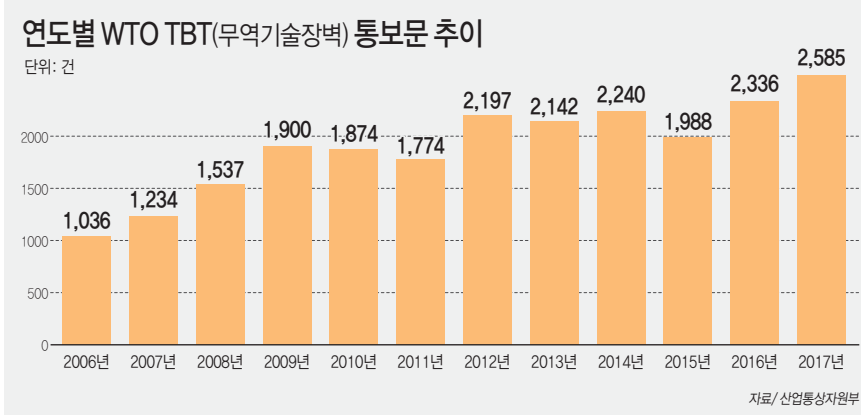
세계기술규제 도입건수 역대최고 아프리카 등 개도국 규제 급상승 4차산업 등 신산업 규제도 강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와 환경보호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인 ▲세계 기술규제 공식 도입건수 최고치 기록 및 개도국 규제 확대 ▲숨은 기술규제 급격한 증가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추세 등을 분석·정리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작년 2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



신했다.

TBT 통보문 발행추이는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87건, 2016년 2332건, 그리고 2017년 2585건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해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 36.7%), 화학세라믹(396, 15.3%), 전기전자(278, 10.8%) 분야 규제가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 새로 제기된 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의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국표원은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STC 제기가 2017년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도 높일 계획"이라며 "이달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열고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최근 기업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외국이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진설팅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정책브리핑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진행된 '비온드 팜' 1호점 개장식 모습. /농식품부

## 농식품부 '비온드 팜' 1호점 개장

앞으로 국산 농식품을 전용 판매관에 만나볼 수 있게 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에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판매관 '비온드 팜' 1호점을 개장했다.

비온드팜 1호점은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제품의 판로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민간주도형 전문판매관으로 시범 운영된다. 운영업체는 올해 5월 민간운영사업자 공모로 선정됐으며 6차산업 제품 BI(Beyond Farm)를 이용한 최초의 브랜드 통일 매장이다.

앞으로 전국 시·도에 설치된 6차산업 안테나숍(전국 28개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소비자 반응도가 우수한 제품을 비온드팜 매장에서 판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도권 소비자 대상 판로확대의 선도 매장으로 역할하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 지역 특화버섯 30종 개발... 지역경제 살린다

농진청, 표고·목이 등 10개 품종 2025년 국산 점유율 70% 목표

농진청은 지역별 특화 버섯 품종 30개를 개발했다.

12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역별 특화버섯 30종은 표고, 느타리, 잎새버섯, 산느타리, 갈색팽이, 동충하초, 양송이, 느티만가닥버섯, 버들송이, 목이 등 10개 품종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대표적으로 갈색팽이 '여름향 1호'와 '2호'는 백색팽이가 점유한 팽이시장에 황금팽이라는 차별성이 있는 품종이다. 특히 갈색양송이는 백색에 비해 아삭아삭한 식감이 뛰어나고 재배기간이 짧고 저



갈색팽이 '여름향 1호'. /농진청

장성이 좋아 앞으로 재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식미가 풍부하나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갈색양송이 '단석1호'와 '호감' 품종은 최근 경남 지역에 첫 출하되면서 전국

적인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사람의 귀를 닮은 목이 '용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변활동 원활'의 기능성을 인정했으며, 겨울에는 벌레이고 여름에는 풀로 불리는 약용버섯 동충하초 '도원홍초' 품종은 지역 농가에 우선 보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수출용 버섯인 백색팽이 '백승'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호주 등에 시범수출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잎새버섯과 느티만가닥버섯은 일본으로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버섯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GSP)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

비하는 느타리와 세계인이 가장 많이 먹는 양송이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중앙 및 지자체에서 품종개발과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5년까지 국산 품종 점유율을 70%로 끌어 올려 국내 생산 기반 안정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화버섯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인삼특작부장은 "이번에 개발한 지역특화버섯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우수한 버섯 품종 개발에 매진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 버섯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특수활동비 상납...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 징역 1년6월·안봉근 2년6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 챙긴 점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다시 수감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법종 기자 jaker@

## 철강산업 현장서 노동시간 단축 호소

이인호 산업부차관, 동국제강 방문

정부가 철강산업 현장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2일 동국제강 인천공장을 방문해 이달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관련 동향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 52시간 시대의 개막이 우리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도약도 촉진할 것"이라며 "철강 업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 동국제강 인천공장장은 동국제강의 경우 2007년부터 생산라인 4조 3교대제를 시행했으며 지속적인 근무문화 개선 노력을 통해 주 52시간 이내 근무시스템이 이미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내협력사들이 노동시간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2일 오전 동국제강 인천공장을 방문해 광진구 공장장, 박상규 노조위원장, 사내협력사 대표 등과 주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단축에 우려를 표하던 점을 감안,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당사의 '동반성장 지원금'을 활용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과 사내협력사 관계자들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KICOX 시민혁신단 발족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2일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추진을 위해 'KICOX 시민참여혁신단'을 발족했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산단공의 혁신방향, 추진과제 발굴, 혁신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개선 등 혁신추진 전반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 3대 기본방향인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시민단체, 학계, 사회적 기업, 협력업체, 학생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8명의 외부위원과 5명의 내부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황규연 공단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국토부

###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허위등록 267대 퇴출

제작연도를 허위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등록 말소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등록 의심장비 366대를 적발하고 이 중 267대를 퇴출했다. 또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78대의 타워크레인은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다. 이들에 대해서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